

스포츠가 사라졌다... “이제는 무슨 재미로”

미국, 유럽 주요 스포츠·도쿄올림픽 각종 예선 중단
테니스 전면 중단 이어 골프 메이저 대회 무기 연기

전 세계 스포츠 경기가 사라졌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스포츠 경기는 ‘세계적 전면 중단’에 직면했다. 전 세계 스포츠를 사실상 양분하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스포츠 경기가 일제히 중단됐기 때문이다. ‘프로 스포츠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경우 미국프로농구(NBA)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가 나오면 12일(한국시간) 리그가 전면 중단됐고, 메이저리그 야구(MLB) 역시 시범경기를 취소하고 정규리그

개막도 연기했다. 또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도 13일 시즌 중단을 선언하는 등 북미 4대 프로스포츠 가운데 현재 비시즌 기간인 미국프로풋볼(NFL)을 제외한 3대 종목이 모두 중단또는 개막 연기 조치를 내렸다. 유럽의 프로축구 5대 리그도 모두 멈춰 섰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독일 분데스리가, 이탈리아 세리에A, 프랑스 리그1이 모두 2019-2020시즌을 중단했고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및 유로파리그 경기 일정도 연기됐다.

‘3월의 광란’으로 불리는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남자농구 디비전 1 토너먼트가 취소됐고, 6월 개최 예정인 2020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20)의 연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인 프로 종목인 골프와 테니스도 전면 중단됐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는 4월 첫 주 발레로 텍사스오픈까지 취소했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도 4월 초까지 예정됐던 3개 대회 일정을 백지화했다. 특히 PGA 투어와 LPGA 투어 모두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와 ANA 인스퍼레이션이 무기한 연기됐다. 골프계에서는 ‘무기한 연기’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취소’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제5의 메이저’로 불린 BNP 파리바오픈을 취소한 남자프로테니스(ATP)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역시 4월 중순까지 대회 개최를 포기했다.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5월 프랑스오픈 개최도 불투명하다.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년 연기’를 언급하는 등 ‘풍전등화’ 신세다. 예정됐던 올림픽이 취소된 것은 세계 2차대전 기간인 1940년과 1944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아마추어 종목들의 경우에도 도쿄올림픽 예선 대회들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어, 7월 도쿄올림픽이 정상적으로 개최될 경우 그 이전까지 올림픽 본선 티켓의 주인을 다 가려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동국, 염기훈, 정조국, 최효진(왼쪽부터). 연합뉴스

이동국·염기훈, 첫 80-80클럽 가입 경쟁

정조국·최효진·강민수 등
K리그 400경기 출전 앞뒤

프로축구 K리그를 대표하는 두 베테랑이 리그 첫 ‘80(골)-80(도움)’ 클럽 가입에 도전한다. 16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전설’ 이동국(41·전북 현대)과 ‘원발의 마법사’ 염기훈(37·수원 삼성)은 나란히 리그 첫 ‘80-80클럽’ 가입을 앞두고 있다. 더 가까이 있는 건 이동국이다. 현재 통산 224골, 77도움을 기록 중인 이동국은 도움 단 3개만 추가하면 K리그 최초로 80-80클럽에 가입한다. 다만, 최근 이동국의 기록을 살펴보면 80-80클럽 가입이 쉬워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동국의 도움 기록이 2017시즌 5개, 2018시즌 4개, 2017시즌 2개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염기훈은 73골에 106도움을 기록 중이다. 7골을 더 넣으면 80-80클럽

멤버가 된다. 염기훈 최근 3시즌 연속으로 정규리그 6골을 기록했다. 올 시즌 더 분발해야 이동국을 제치고 80-80클럽에 먼저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K리그 개막이 연기된 가운데, 올시즌이 시작되면 두 선수가 80-80클럽 가입을 향한 뜨거운 레이스를 펼쳐주기를 팬들은 기대하고 있다. 50-50클럽 가입을 노리는 선수들도 있다. 울산 현대의 이근호(73득점 49도움)와 윤빛가람(47득점 41도움), 대구FC의 대안(189득점 45도움), 전북의 이승기(42득점 49도움) 등이 50-50클럽 가입에 가까이 있다. 이어 제주의 정조국(380경기), 전남의 최효진(399경기), 부산의 강민수(394경기), 포항의 김광석(382경기)은 통산 400경기 출전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400경기 출전은 프로축구 역사상 단 14명만 달성했다. 연합뉴스



시즌 개막을 기다리며 16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A이노스 훈련에서 외국인 투수 마이크 라이트가 볼펜에서 힘차게 투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회 중단에 테니스 선수들 ‘온라인 구직’

남녀 프로 테니스 대회가 4월 중순까지 전면 중단되자 일부 선수들이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구직 활동을 나섰다. WTA 투어 단식 세계 랭킹 158위 사치아 비커리(25·미국)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력서를 공개했다. 그는 “4월 20일까지 일할 수 있다”

며 “2017년 US오픈 본선 진출, 2018년 투어 대회 4강, 호주오픈 2회전 진출 등”이라며 자신의 이력을 소개했다. 통산 상금 120만2497달러(약 14억 6000만원)를 벌었지만 2018년 7월 말 73위 이후 랭킹이 계속 내려가며 150위 밖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대회

마져 중단되자 구직 활동에 나섰다. ATP 투어 단식 세계 랭킹 26위 알렉스 드미노(21·호주)는 실외 주차장에서 만화 캐릭터 얼굴 모형을 상의처럼 입고 찍은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 그러면서 ‘구직 중’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또 노아 루빈(224위·미국)과 조니 오마라(복식 랭킹 54위·영국) 등도 테니스 레슨을 해주겠다고 홍보에 나섰다. 연합뉴스

‘무기 연기’ 마스터스 대회 경제적 가치 1200억 이상

해마다 4월에 열린 ‘명인 열전’ 마스터스 토너먼트의 경제적 가치가 1억달러(약 1218억원) 이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지역 일간지 오거스타 크로니클은 15일(한국시간) 기사를 통해 “오거스타대 제임스 M.힐 경영대학의 리처드 프란자 학장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마스터스가 오거스타 지역에 미친 경제적 영향은 1억2500만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역 국제청장인 스티븐 캔들릭은 오거스타 크로니클과 인터뷰에서 “이곳 사람들은 마스터스 주간을 ‘13번째 달’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회 기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4월 9일 개막 예정이던 마스터스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언제 대회를 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캔들릭 청장은 “대회가 다행히 취소되지 않고 연내 다른 시기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봄에 예정됐던 수입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회 장소인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 인근의 골프장들도 ‘마스터스 특수’는 누리지 못하게 됐다. 연합뉴스

상 장

제주혁신성장대상

위 기업인은 제주지역 주력산업육성사업을 통해 기업 육성발전과 일자리창출 등 제주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이를 널리 알림과 동시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

제주도 에너지공사
벤처기업
인공지능 기술보유
한화 Q-CELL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 현대에너지 솔루션 소프트웨어 계약 성사

• 제주지역 단일공사 1MW급 최초 스크류공사 시행
(시공성 우수, 안정성 우수_인발테스트 리포트 결과 기준치 대비 1.5배 강함)

•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주관 제주지역 우수사례업체 선정, 제주혁신성장대상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따뜻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
나눔에너지
인공지능보유 / 벤처인증기업 / 고용우수기업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 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주) 나눔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 064 - 745 - 0420 FAX. 070 - 8812 - 0420